도교육청 "초·중생 모형칼 소지 금지"

도내 초·중학교에 공문 안내… "폭력적인 놀이 문화 형성 안돼"

최근 초·중학생들이 사이에서 일명 '당근칼'이 유행하자 전북교육청이 소지 금지에 나섰다.

16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초·중학교에 '만 14세 미만의 학생들이 모형칼 구입 및 소지를 하지 않도록 학생 안전교육과 학부모 안내'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당근칼'은 플라스틱 재질의 칼 모형 완구로 칼집에 연결된 칼날을 돌려 접고 펴는 방식의 장난감이다. 문구점에서 1,000~2,000원이면 손쉽게 구매할 수 있다. 이는 칼날이 뭉툭하고 칼끝이 둥글어 다칠 위험은 적지만 학생들 사이에서 폭력적인 놀이 문화가 형성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어서다.

이에 전북교육청은 공문을 통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흉기로 인한 사건·사고 발생과 칼부림 모방 놀이문화로 인해 생명 경시 사상으로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학부모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노경숙 학교안전과장은 "최근 학생들 사이에서 당근칼을 사용한 찌르기, 목 겨누기, 인질 놀이 등이 유행하고 있다"면서 "맞춤형 안전교육을 통해 안전한 교육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시험을 치르고 있는 수험생들

16일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전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시험을 치르고 있다.

'2024 수능, 킬러문항 없었으나 어려웠다'

국어·수학·영어 체감 난이도 작년처럼 어려워

전체 성적 분포 내달 8일 결과 나올 때 판가름 날 듯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소위 '킬러문항'을 배제했음에도 지난해 수능만큼 까다로웠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대입 영향력이 큰 수학은 최상위권 변별력에 국한해 9월 모의평가보다 어려웠으나 지난해 수능보다 쉬웠다는 관측 속에서 다소 엇갈린 분석이 나온다.

16일 EBS 현장 교사단과 입시 업계의 분석을 종합하면, 이날 수능의 국어·수학·영어 영역의 전반적인 수험생 체감 난이도는 지난해 수능처럼 어려웠다는 평이다.

출제본부도 이날 출제경향을 발표하면서 27년 만의 최대 규모인 'N수생' 과 과목 선택에 따른 대입 유·불리를 고려했다고 밝힌 만큼 이들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정문성 2024학년도 수능 출제위원장(경인교대 사회교육과 교수)은 킬러문항에 대해 "출제하지 않았다"면서 "킬러문항이 고난도 문항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EBS 현장 교사단 소속 윤윤구 한양대사대부고 교사(EBSi 입시 강사)는 "(출제본부가) 국·수·영 전체적으로 전년도와 유사한 수준의 기조를 유지하려 노력했다"며 "난이도와 (채점) 결과치도 전년도와 유사한 형태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내다봤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대입에서 국어와 수학이 모두 중요한 과목으로 부상했다"며 "수험생 입장에서는 어려운 문제가 빠진 상태에서도 어렵게 출제돼 다소 쉬워질 것이라는 기대 심리와 배치됐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치러진 2023학년도 수능의 최고 표준점수는 국어 134점, 수학 145점이다. 원점수 만점자 등 최상위권을 기준으로 국어는 '용암 국어'라는 평가를 받은 전년(149점)보다 쉬웠고 수학은 전년(147점)만큼 어려웠다.

윤 교사는 "절대평가의 기조에 맞는 적정 수준 비율을 유지하려 노력한 흔적들이 많이 보인다"며 "친숙한 소재나 교육적 가치가 있는 소재를 활용했다"고 했다.

다만 전체적인 성적 분포는 N수생 유입과 코로나19에 따른 고3 재학생의 학력저하 등 변수가 많아 다음달 8일 성적표가 나올 때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수능 원서를 접수한 수험생은 50만4588명이며 이 중 N수생으로 불리는 재수생 등 졸업생은 15만9742명(31.7%)이다. 1교시 기준 결시율은 10.6%로 지난해와 비교해 0.2%p 하락했다.

채점은 문항과 정답에 대한 이의심사 후 이뤄진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날부터 오는 20일까지 닷새 동안 전용 게시판을 통해 신청을 받는다. 이달 21~28일 심사를 거쳐 이달 28일 오후 5시 정답을 확정한다.

/뉴시스

'종치고 마킹·휴대폰 소지' … 도내 수능 부정행위 7건 적발

선택과목 풀이 위반 등 잇단 무효 처리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16일 전국에서 일제히 치러지고 있는 가운데 전북지역에서 7건의 부정행위가 적발됐다.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현재까지 전주·고창·군산지구 수험장 7곳에서 부정행위자가 적발돼 모두 퇴실 조처됐다.

먼저 전주 A수험장에서 휴대전화를 소지한 수험생이 귀가 조처됐다. 당시 1교시 시험 후 쉬는시간 중 해당 학생의 가방에서 휴대전화 소리가 울리면서 주변 학생이 부정행위로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전주의 B수험장에서는 2교시 시험 중 모여 있는 수험생 가방 쪽에서 진동이 울려 금속탐지기로 조사한 결과 무선 이어폰이 발견됐다.

여기에 전주의 C수험장에서도 디지털 시계를 보유한 수험생이 2교시 시험 감독 중이던 감독관으로부터 적발돼 퇴실 조치됐다.

3교시 시작 전에도 전주 D시험장에서 디지털 시계를 소지한 수험생과 고창의 한 시험장에서 블루투스 헤드폰을 가지고 있던 수험생이 추가로 적발됐다.

이와 함께 우려했던 상황도 발생했다. 2교시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답안지를 작성한 수험생과 4교시 탐구 영역 시험에서 2선택 시험 시간에 1선택 과목 답안지를 수정한 수험생이 각각 응시 방법 위반을 사유로 시험이 무효 처리됐다.

이 같은 행위는 '반입 금지 물품 소지·사용', '선택과목 시험요령 미숙지' 등에 해당해 시험이 무효 처리된다.

이와 관련 시험실에는 휴대전화를 비롯해 스마트기기, 디지털카메라, 전자사전, 태블릿PC, 카메라 펜, 전자계산기, 통신·결제 기능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가 있는 시계, 통신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는 금지되기 때문에 1교시 시작 전 제출해야 한다.

또 종료령이 울린 후 계속해서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도 부정행위다. 답안 마킹을 끝내지 못했다고 종이 울린 후에도 작성을 이어나가면 0점 처리될 수 있으니 일단 필기구를 내려놓아야 한다.

4교시 탐구 영역 과정에서도 선택과목 시간별로 해당 선택 과목이 아닌 다른 선택과목의 문제지를 풀거나 동시에 여러 과목 문제지를 푸는 행위는 부정행위다.

한편 전북지역에서는 6개 시험지구, 65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시험이 치러졌다. 응시 인원은 지난해보다 269명 줄어든 1만6,805명(원서접수자 기준)이다.

/뉴시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전주대, 희스토리푸드와 산학협력 협약 체결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는 지난 15일 희스토리푸드(대표이사 육경희)와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대학 본관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희스토리푸드 육경희 대표, 이진형 부대표와, 전주대에서는 박진배 총장, 차진아 교무처장, 최진희 문화관광대학장, 도현욱 한식조리학과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한식 전문인 양성 교육을 위한 협력 △한식과 식품 관련 인재 육성 프로그램 지원 및 공동참여 △한식에 대한 지식·정보·시설·인력의 교류 △산업체 현장실습 교육 및 취업 연계 협력 등이다.

한편, ㈜희스토리푸드는 우리 순대를 최초로 브랜딩한 '순대실록'을 25개점을 운영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전주교대, 유·초·중등 연계 강화 세미나 개최

전주교육대학교(총장 박병춘)는 지난 15일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유·초·중 교육 연계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는 홍기천(컴퓨터교육과) 교수를 비롯한 호원대학교 유아교육과 이성주 교수, 전북미래교육원 양성화 과장, 강릉원주대학교 유아교육과 오아름 교수, 칠보초등학교 김요셉 교사, 온빛중학교 안은경 교사가 발표자로 참여했다.

이들은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전라북도 학교 디지털 교육의 효과적인 방향성을 모색하고, 다양한 경험과 교육사례를 공유해 교류를 활성화하는데 힘을 모았다.

이번 세미나는 현장에서의 경험과 함께 실제 교실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방법을 담고 있어 좋은 반응을 이끌어 냈다.

/장은성 기자

전주기전대, KOICA 해외봉사단 모집 설명회

전주기전대학 KOICA&국제교류원은 16일 플립 러닝실에서 전북국제개발협력센터(센터장 박흥식)와 함께 'KOICA 해외봉사단 모집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역사회 대학생의 국제개발협력사업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개발협력분야의 진로·취업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KOICA 해외봉사단의 목적 △KOICA 봉사단 활동 유형 △KOICA 해외봉사단 모집 안내 △귀국 단원 활동 사례 등을 공유했다.

KOICA&국제교류원 김가현 원장은 "전주기전대학은 KOICA 및 WFK(World Friends Korea)의 다양한 사업을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재학생의 글로벌 역량과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북국제개발협력센터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통해 함께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어 기쁘다"고 했다.

/장은성 기자

서거석 교육감은 16일 오전 7시 30분부터 30여 분간 전주 전라고등학교 앞에서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르기 위해 학교 안으로 들어가는 수험생들을 응원했다.

"지금 흘리는 값진 노력 빛나는 내일의 주인공으로"

서거석 교육감, 전라고서 대입 수능 수험생 응원

서거석 교육감은 16일 오전 7시 30분부터 30여 분간 전주 전라고등학교 앞에서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르기 위해 학교 안으로 들어가는 수험생들을 응원했다.

서 교육감은 "인내와 끈기로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온 여러분이 정말 대견하고 자랑스럽다"면서 "지금 여러분이 흘리는 값진 땀의 노력이 여러분을 빛나는 내일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목표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있는 여러분이 결승전에 닿을 때까지 전북교육청도 함께 응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수능 시험은 전주·군산·익산·정읍·남원·김제 등 도내 6개 시험지구, 총 65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치러졌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 석사과정생 2명, 올해 '젊은 과학자상' 수상

안미래·정슬기, 대한라이프스타일의학회 학술대회서

안미래

정슬기

전북대학교 간호대학 안미래·정슬기 석사과정생(지도교수 노주희)이 최근 열린 2023 대한라이프스타일의학회 정기학술대회에서 '젊은 과학자상'을 수상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르면 수상자들은 '여성 1인가구와 다인가구의 우울, 자살생각 및 삶의 질 비교'라는 연구 주제를 발표해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이 연구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진행된 제8기 국민건강영양조사 빅데이터를 활용해 증가하는 성인 여성 1인 가구의 특성을 파악, 가구 형태에 따른 여성의 건강행태, 정신건강, 삶의 질 등을 비교했다.

안미래·정슬기 대학원생은 이번 연구를 통해 성인 여성 1인가구가 다인 가구에 비해 삶의 질이 낮으며,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건강행태의 측면에서 취약한 요인이 더 많다는 결과를 도출해 냈다.

또한 우리나라 국민을 위한 보건정책 마련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국민건강영양조사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자료 수집 대상자가 한국 성인여성 1인가구 특성을 대표할 수 있다는 점과, 도출한 결과를 다각도로 분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안미래·정슬기 대학원생은 "이번 연구를 시작으로 외부 요인에 많은 영향을 받는 여성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법을 찾아나가는 연구자로 성장해 나가겠다"며 "이번 연구를 위해 많은 지도와 도움을 준 노주희 교수님과 수상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장은성 기자

지난 15일 베트남 문화체육관광부 국장을 비롯한 예술, 체육 분야 10개 대학 총장단 15명이 전주대학교를 찾은 가운데, 박진배 총장과 협약을 체결했다.

베트남 문체부 국장 일행, 전주대 방문

인재 육성 위한 국제협력 프로젝트 추진 상호 협력

전주대, 호치민시 체육대·무용전문대와 협약 체결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는 지난 15일 베트남 문화체육관광부 국장을 비롯한 예술, 체육 분야 10개 대학 총장단 15명이 본교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베트남 정부에서 2035년까지 진행하는 문화, 체육, 관광 분야의 전문 인재 육성 사업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이에 따르면 베트남 문화체육관광부 국장 일행은 이날 대학 본부 접견실에서 예술체육관광 분야 인재 양성에서의 협력, 우수 교수와 학생의 파견, 인재 육성을 위한 국제협력 프로젝트 추진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호치민시 체육대학교, 호치민시 무용전문대학교와 업무협약(MOU)도 체결했다.

/장은성 기자